

펀드매니저가 들려주는

신영주니어 경제박사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2020. 04. 27. ~ 2020. 07. 26.



주니어경제박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의 펀드는 +22.18%의 수익률을 보였어요. 같은 기간 +14.81%를 기록한 비교 지수와 비교했을 때 7.37%p 높은 성과를 기록하게 되었어요.

지난 3개월 동안은 코로나19의 2차 유행에 대한 우려와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뒤섞여 있었어요. 다만 국내 주식 시장은 해당 기간동안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세계 주요 나라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 경기 부양책을 냈고 우리나라 또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어요. 주기적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 및 2분기(4월부터 6월까지) 국내 기업들의 이익 성적표가 시장에서 우려한 것보다 좋게 나온 점, 글로벌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의 효능 검증 과정에 있어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온 점 등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물론, 해당 기간동안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준의 파월 의장이 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한 점, 코로나19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온 점 등은 주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지만, 이보다 긍정적인 소식들이 주식 시장에 더 많이 반영되는 3개월이었습니다.

주니어경제박사 펀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 가치주'가 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 내에 있는 기업인지, 산업 내에서 기업이 충분히 의미있는 점유율을 유지하고(혹은 유지할 수) 있는지,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이 양호한 지(혹은 앞으로 큰 폭으로 높아질 여지가 있는지) 등에 초점을 두고 이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선별하는 과정을 통하여 펀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 중에 있습니다.

펀드 성적을 살펴 볼까요~!

<주니어경제박사 수익률 및 펀드 규모> 기준일 : 2020.07.26.

(비교지수 : KOSPI 90.0% + CD91 10.0%)

+ 22.18 %

최근 3개월 수익률

주니어경제박사 펀드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2020. 04. 27. ~ 2020. 07. 26.) +22.18%입니다.

비교지수 수익률이 +14.81%인 것에 비하면 7.37%p만큼 높습니다.

최근 1년 수익률

+ 7.04 %

비교지수 : +6.30%

비교지수대비 : +0.74%p

최근 3년 수익률

- 5.80 %

비교지수 : -7.83%

비교지수대비 : +2.03%p

최근 5년 수익률

+ 17.94 %

비교지수 : +8.23%

비교지수대비 : +9.71%p

신영주니어경제박사

신영자산운용

www.syfund.co.kr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24,916백만원

순자산 총액

+18.27%p ↑

증감률

주니어경제박사 펀드 투자 바구니에 얼마나 많은 돈을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순자산 총액이에요.
순자산 총액이 3개월 전 보다 18.27%p 커졌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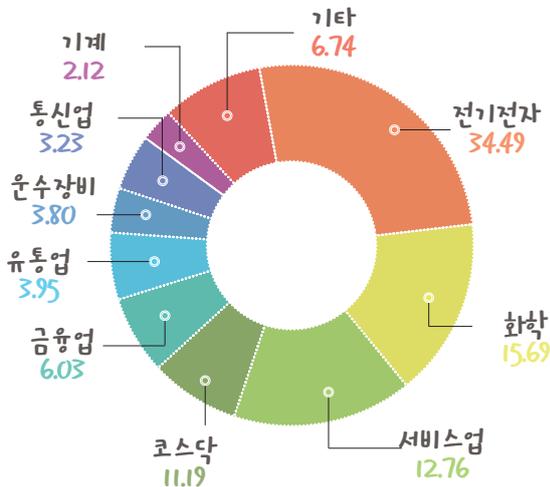
※ 증감률이란? 우리 펀드가 3개월 전보다 얼마나 커졌는지 혹은 줄었는지를 말해줘요.

우리 펀드는 어디에 투자되고 있을까요?

우리 펀드의 투자바구니에는 주식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펀드매니저가 여러 회사를 직접 방문하면서 평가하여 앞으로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회사를 신중하게 골라내어 우리 펀드의 투자바구니 안에 담았어요.

우리 투자 바구니 안에는 어떤 주식이 있을까요?

<업종별 투자비중>



<주요 투자 종목>

(기준일: 2020. 04. 26. 단위: %)

1위	삼성전자	21.01	6위	코웨이	2.51
2위	SK케미칼	7.21	7위	삼성전자우	2.45
3위	LG화학	3.97	8위	씨에스윈드	2.05
4위	SK하이닉스	3.28	9위	LG생활건강	1.99
5위	NAVER	2.74	10위	삼성SDI	1.97

2020년 7월 26일 기준으로 주니어경제박사 펀드는 전기전자 업종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어요. 종목은 삼성전자, SK케미칼, LG화학 등의 종목을 높은 비중으로 들고 있습니다.

신영주니어경제박사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신영자산운용
www.syfund.co.kr

<주니어경제박사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알아보나요?>

 SK chemicals

SK케미칼

친환경 화학 소재, 제약, 백신 등을 개발 및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방역 소재 공급 및 백신 개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NAVER

NAVER

우리나라 1위 인터넷 검색 포털인 '네이버'와 모바일 메신저 '라인', 동영상 카메라 '스노우', 디지털 만화 플랫폼 '네이버웹툰' 등을 서비스 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요.

coway

코웨이

1998년 렌탈 비즈니스 개념을 업계 최초로 도입한 기업이에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침대 매트리스 등을 렌탈 및 관리해주는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어요.

투자자산매매내역을 알아보나요?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기준일 : 2020. 07. 26.

(단위 : 백만원, %)

매수	
수량	금액
173,794	8,640

매도	
수량	금액
265,784	9,225

매매회전율	
해당기간	연환산
40.98	164.36

<최근 3분기 주식 매매회전율 추이>

(단위 : %)

2019.10.27 ~ 2020.01.26
7.24

2020.01.27 ~ 2020.04.26
27.73

2020.04.27 ~ 2020.07.26
40.98

주니어경제박사의 경제열전 - 뉴딜정책 이야기

한국판뉴딜 추진...디지털·그린뉴딜로 경제 대전환

[한국판뉴딜] 국비 114조원 포함 160조원 투입

출처 : 연합인포맥스

지난 7월, 정부는 2025년까지 엄청난 규모의 돈을 투자해 약 16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선언했어요. 이 정책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위축된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고자 계획된 정책인데요. 이번 경제열전에서는 한국판 뉴딜에서 '뉴딜'이란 단어의 유래, 한국판 뉴딜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해당 정책이 우리 주니어경제박사 펀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뉴딜(New deal)'의 의미는 새로운 출발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과거 1930년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위해서 추진했던 경제 부흥 정책을 일컫는 말로 쓰여요. 그렇다면 과거 미국에서 뉴딜 정책이 탄생하게 되었던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까요?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미국 뉴욕의 증권시장은 열리자마자 엄청난 폭의 하락을 보여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주식 시장이 급락하면 평소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라 여기는 시장 참여자들이 주식을 사고자 하는 욕구가 많아지기 마련인데요. 그러한 욕구보다 주식 시장에는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가 가득했고 많은 투자자들이 돌아오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엄청난 양의 주식을 팔았답니다. 이에 이틀 연이어 10% 이상씩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는 경제 대공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사건이랍니다.



출처 : pixabay

주식시장이 이렇게 단기간에 급격히 떨어지면 경제 내 필요한 곳곳에 돈을 공급해주는 금융 시장은 얼어붙게 돼요. 사람 몸 속에 피가 핏줄을 통해 돌지 않으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듯이,



출처 : pixabay

경제 내에서 돈이 금융시장을 통해 가게나 기업에게 조달되지 않는다면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많은 기업들은 금융시장을 통해 돈을 조달하여 공장을 짓고 연구개발을 하는 등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는데 이러한 투자가 감소하고, 투자로부터 생기는 일자리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기 상황에 오면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불안감에 사람들은 최대한 소비를 줄이게 돼요. 그렇다면 기업이 만든 제품이나 창출해 낸 서비스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매출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다시,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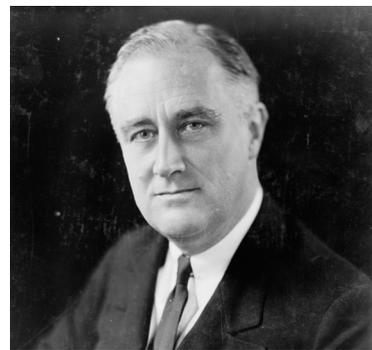
주니어경제박사의 경제열전 - 뉴딜정책 이야기

한국판뉴딜 추진...디지털·그린뉴딜로 경제 대전환

[한국판뉴딜] 국비 114조원 포함 160조원 투입

근로자 입장에서는 받은 임금으로 소비를 해야 할텐데, 그럴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는 다시 기업이 만든 제품이나 창출해 낸 서비스의 수요를 줄이는 악순환이 지속된답니다. 결국, 주식시장 대폭락으로부터 시작된 여파로 인해 문을 닫는 기업들이 비일비재 했고, 1933년 들어서는 전체 근로자의 3명 중에 1명은 실업자로 전락했답니다.

대공황 시작 이후 1933년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루즈벨트는 시장 경제가 스스로 이 위기를 회복하게끔 그대로 두면 더 상황이 안좋아질 것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위기를 나서서 해결하자는 주의로 두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시장 경제에 개입하겠다고 나서죠. 그는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여러가지 세부 정책들을 펼쳤는데, 핵심은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여 민간 부문에서의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얼어붙은 금융 시장에 돈이 다시 원활하게 돌 수 있게끔 해주자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경기가 어려워져 농산물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든 데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보조하고, 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은행 중에 우량한 은행을 골라 돈을 적극적으로 빌려주는 등 은행이 다시 기업과 가계에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살려줍니다. 또한,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해당 지역의 다목적댐 건설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등의 노력을 했답니다. 이런 일련의 정책들을 통칭하여 뉴딜 정책이라고 한답니다.



미국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출처 : Unsplash

그렇다면 한국판 뉴딜은 이런 과거의 뉴딜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로 나뉘는데요. 이를테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들이 통신 등 여러 기술의 발달로 인해 비대면으로 가능해진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과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탄소나 온실가스 등의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등의 계획을 담고 있어요. 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 산업 구조의 변화가 크게 일어났고 그에 따른 필요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주니어경제박사의 경제열전 - 뉴딜정책 이야기

한국판뉴딜 추진...디지털·그린뉴딜로 경제 대전환

[한국판뉴딜] 국비 114조원 포함 160조원 투입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은 주니어경제박사 펀드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국가 단위로 대규모의 투자금을 집행하게 된다면, 그 정책의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생기게 돼요. 예를 들면, 인프라(도로, 교량, 터널, 항만 등) 시설 공사가 진행된다면 건설 자재 혹은 장비를 판매하는 기업 및 건설을 주 사업으로 하는 기업들이 진행하게 되는 공사가 급격히 늘면서 해당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는 등의 일이 생기겠죠? 한국형 뉴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관련 산업에 속한 기업 및 친환경 에너지 생산 기업 등의 기업들이 그 혜택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주니어경제박사 펀드도 이러한 기업들에 활발히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씨에스윈드라는 기업을 들 수 있겠는데요, 해당 기업은 풍력 타워 제조 부문에 있어 전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출처 : pixabay

최근 친환경 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관심 증가와 주요국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그린 뉴딜'을 내세우면서 풍력 발전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에 해당 기업이 그에 따른 혜택을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최근 큰 폭의 주가 상승으로 최근 여러분의 펀드 수익률에 많은 기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펀드는 각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 중 우량하고 튼튼하면서 아직 시장 참여자들이 제 값을 알아보지 못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니어경제박사 친구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서울, 경기지역에서 다시 일일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어서면서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감염병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인데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을 습관화하여 이 시기를 씩씩하게 잘 이겨내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경제열전에서 만나요!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우리 펀드의 운용 (부모님께)

신영주니어경제박사증권투자신탁(주식)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22.18%로 비교지수 대비 7.37%p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비교지수(벤치마크): KOSPI X 90% + CD91 X 10%) 이는 펀드 내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백신 업체와 풍력 타워 제조업체 등의 기간 성과가 시장 대비 압도적으로 양호했음에 기인합니다.

<운용경과>

해당 기간 내 중간중간 코로나19의 2차 확산 우려가 부각되기도 하였으나,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관련한 긍정적 소식, 주요국들의 경기부양 노력 지속, 그리고 예상 대비 양호한 경기지표 및 2분기 기업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7월에는 유로존의 재정 통합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고, 반대 급부로 달러 약세 현상이 펼쳐지며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 현상까지 나타나는 등, 요컨대 증시에 우호적 양상이 많았던 지난 3개월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인터넷/소프트웨어, 제약/바이오, 2차전지 업종의 수익률이 양호했으며, 통신/유틸리티, 보험, 유통 등 업종은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 내 언택트(Untact) 및 바이오 업종으로의 선호도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 펀드는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사회 구조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수혜를 인정하고 있으나, '주가' 측면에서 과도한 프리미엄이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는 업체들의 신규 편입은 지속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기업가치 성장 가속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관점에서 펀드 편입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펀드의 운용 (부모님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코로나19 이후 풀린 막대한 유동성 환경 아래, 기대 대비 양호했던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 그리고 주요국 경제 지표가 발표됨에 따라 증시는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특히 유로화 강세에 따른 달러 약세는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을 강화하며 증시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유동성 및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라 증시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으나, 실물 경기 지표를 확인해가는 과정에서 지수 레벨(level)을 둘러싼 긴장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 펀드는 확실한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경제 활동이 '완전하게' 정상화되기 어려우며, 실제로 악화된 실물 경기지표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코로나19의 2차 유행 가능성, 한국의 수출 부진, 미-중 무역갈등 재개 가능성, 하반기 예정된 미국 대선 등은 증시에 잠재적 리스크 요인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주가'의 관점에서는 과도한 비관론 또한 실익이 낮은 구간이라는 판단입니다. 1) 1분기 때보다 나쁜 뉴스(Sentiment)를 예상하기란 쉽지 않으며, 2) 주요국들의 경기부양 노력을 감안할 때 2분기보다 나쁜 실물 경제지표(Fundamental)가 하반기에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3) 저금리 기반의 풍부한시중 유동성은 증시의 하방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단기적 경기 예측의 가시성이 '현저하게' 낮은 상황에서는, 역설적으로 오히려 장기 낙관의 태도를 취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진할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어있는 2분기 경제 지표를 넘어, 2020년 하반기 이후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나가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실물경기지표들을 확인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변동성은 오히려 우량 가치주를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수 레벨에 대한 피로도가 높은 현 시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우량 가치주' 여부를 판단할 핵심적 근거는 1) 얼마나 확장성이 큰 산업(시장)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지, 2) 시장 점유율은 얼마나 유의미한지, 3) 현재의 현금흐름 양상이 양호한지(혹은 앞으로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지)가 될 것입니다. 해당 관점에서 동 펀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높아 향후에도 기업 가치의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1) 견고한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중국 소비 시장 성장에 따른 꾸준한 기업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럭셔리 화장품 업체, 2) 2차 전지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3) 인구 구조 변화 및 연구개발력 향상에 따른 장기 성장이 기대되는 제약/백신 업체, 4) 해외 신시장 개척에 따른 실적 개선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 음식료 업체, 5) '그린 뉴딜'이라는 글로벌 정책 기조 아래, 풍력 및 스마트그리드 등 친환경/신재생에너지 관련 핵심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 코로나19 이후 '구독경제'식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구조적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렌탈 업종 기업에 대해서도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중장기적인 사회구조적 변화 흐름, 그리고 기업 본연의 경쟁력에 집중하는 리서치와 펀드 운용을 통하여 중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